coupang newsroom

쿠팡플레이 금주의 추천작: 8월 1주 차

2025. 8. 1.

쿠팡플레이에서 볼만한 추천작을 각각의 링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쿠팡플레이 8월 1주 차 추천작을 소개합니다.

수퍼 소닉 3

8/5(화) 공개 예정

애니메이션 / 짐 캐리 / 벤 슈와츠 / 제임스 마스덴 / 티카 섬터 / 미국 / 2025

“초고속 히어로 소닉이 돌아왔다!”. ‘너클즈’, ‘테일즈’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소닉’. 그러나 연구시설에 50년간 잠들어 있던 사상 최강의 비밀 병기, ‘섀도우’가 탈출하며 상황은 급변한다. 세계 수호 통합 부대에 극비 소집된 ‘소닉’ 팀.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섀도우’는 ‘소닉’의 스피드와 ‘너클즈’의 펀치마저 단숨에 제압한다. 여기에 ‘닥터 로보트닉(짐 캐리)’과 그의 조부 ‘제럴드 박사’까지, ‘섀도우’의 카오스 에너지를 이용해 인류를 정복하려는 음모가 더해지며 사상 최악의 위기가 펼쳐진다. 초특급 히어로 소닉 VS 사상 최강의 라이벌 섀도우’, 세상을 건드릴 슈퍼 빅 매치가 시작된다!

‘수퍼 소닉 3’

커미션

미스터리 / 김현수 / 김용지 / 김진우 / 남명렬 / 주석태 / 정재오 / 한국 / 2025

“이 세계 어딘가, 내 그림을 따라 죽이는 사람이 있다”. 웹툰 작가를 꿈꾸며 현실에선 외면받던 미술 강사 ‘단경(김현수)’. 어느 날, 다크웹을 통해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상한 커미션을 받게 된다. “이 장면을 그려주세요”라는 짧고 섬뜩한 메시지. ‘단경’은 의뢰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지만, 곧 현실에서 그 장면과 똑같은 살인이 벌어진다. 그림을 그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공포, 지워지지 않는 의심, 멈출 수 없는 커미션. “커미션 받습니다”라는 한 줄의 답장이, 그녀를 지옥으로 이끈다. 제43회 브뤼셀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제29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초청작으로 화제를 모은 <커미션>을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보자!

‘커미션’

슈츠 LA

법정 / 스티븐 아멜 / 렉스 스캇 데이비스 / 조쉬 맥더밋 / 브라이언 그린버그 / 미국/ 2025

“뉴욕을 떠난 이유, LA에선 잊을 수 있을까?”. 전직 뉴욕 연방 검사 ‘테드 블랙(스티븐 아멜)’은 이제 LA 최고 권력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트 변호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그가 평생 경멸해온 사건을 맡게 되며, 피하려 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모든 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테드’는 개인과 일, 원칙과 야망 사이에서 치열한 줄타기를 시작한다. 레전드 법정 드라마 <슈츠>의 세계관을 확장한 스핀오프 <슈츠 LA>. 또 하나의 강력한 법정 드라마를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즐겨보자.

‘슈츠 LA’

신도림 조기축구회 뉴캐슬 편

8/2(토) 오후 8시 공개 예정

예능 / 정상훈 / 김민교 / 정성호 / 권혁수 / 김규원 / 한국 / 2025

“신도림 조기 축구회 입단? 이번엔 뉴캐슬이다”. 지난해 ‘토트넘&뮌헨 편’으로 웃음 폭격 제대로 날렸던 <신도림 조기 축구회>. 이번 시즌엔 닉 포프, 제이콥 머피, 그리고 박승수가 월클 포스를 장착하고 신도림에 떴다. 월클 선수들의 신도림 조기축구회 입단기라는 기상천외한 설정 속, 코믹 감성과 생활 밀착형 개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신도림 조기 축구회>. 한 번 보면 빠져드는 콩트의 매력이 쉴 새 없이 터진다.

슈팅스타

쿠팡플레이 시리즈 / 예능 / 박지성 / 최용수 / 설기현 / 김영광 / 염기훈 / 한국 / 2024

“다시 그라운드로”.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 무대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슈팅스타>. 시즌 1에서 펼쳐진 불가능한 도전은 각본 없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진심 어린 플레이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고, 쇼츠·릴스 누적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실시간 화제성을 입증했다. K4리그 선수들과 맞붙은 ‘레전드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며 상위 리그 승격이라는 성과로 시즌을 마무리한 FC슈팅스타. 그 뜨거운 감동과 성장의 기록은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오는 8월 29일(금) 저녁 8시, 에브라·구자철·이근호 등 더욱 강력해진 레전드들의 합류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슈팅스타> 시즌 2가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슈팅스타’

베놈

액션 / 톰 하디 / 미셸 윌리엄스 / 리즈 아메드 / 제니 슬레이트 / 레이드 스콧 / 미국 / 2018

“영웅인가 악당인가”. 정의감 넘치는 열혈 기자 ‘에디 브록(톰 하디)’은 거대 기업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음모를 파헤치던 중, 외계 생물체 ‘심비오트’와 우연히 접촉하게 된다. 이후, ‘에디’는 심비오트와 한 몸이 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존재 ‘베놈’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악한 존재만을 상대하려는 ‘에디’의 의지와 달리, ‘베놈’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폭력성과 광기를 드러내고 정의와 혼돈 사이, 인류의 운명을 가른 공생의 서사가 시작된다. 압도적인 액션, 강렬한 캐릭터,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안티 히어로’의 탄생. 마블 유니버스의 또 다른 세계 <베놈>을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시청해보자.

‘베놈’

컨택트

SF / 에이미 아담스 / 제레미 레너 / 포레스트 휘태커 / 마이클 스털버그 / 미국 / 2016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SF의 탄”. 전 세계 상공에 정체불명의 외계 비행 물체 ‘쉘’ 12개가 출현한다. 미국 정부는 언어학자 ‘루이즈 뱅크스(에이미 아담스)’와 물리학자 ‘이안 도넬리(제레미 레너)’를 투입해 이들과의 첫 접촉을 시도한다. 18시간마다 문을 여는 쉘. 그 안에서 마주한 미지의 생명체.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해야만,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전쟁과 공포, 의심으로 갈라진 각국 정부의 압박 속에서 ‘루이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진짜 소통을 향해 나아간다. 시간, 존재,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SF 마스터피스이자, 드니 빌뇌브 감독의 또 다른 걸작 <컨택트>, 지금 쿠팡플레이에서 무료로 확인해보자.

‘컨택트’

빌리 조엘: 다 괜찮아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다큐멘터리 / 빌리 조엘 / 미국 / 2025

“피아노 맨의 숨겨진 진짜 이야기”. HBO 오리지널 2부작 다큐멘터리 <빌리 조엘: 다 그런 거야>는 그래미 6관왕,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자,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한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의 삶과 음악을 가장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유년기부터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쉽지 않았던 결혼생활, 자살 시도까지 그의 내밀한 삶을 드라마틱하게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특히,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일상 필름과 홈 비디오, 공연 영상은 물론, 브루스 스프링스틴, 폴 매카트니, 스팅, 핑크, 나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인터뷰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감동을 선사한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초청작으로 주목받은 이 작품은, 톰 행크스가 설립한 제작사가 총괄 제작을 맡아 그 신뢰와 완성도를 입증한다.

‘빌리 조엘: 다 괜찮아’

수수께끼

©2025 Home Box Office, Inc. All rights reserved. HBO® and all related channels and service marks are the property of Home Box Office, Inc.

미스터리 / 에이미 아담스 / 패트리샤 클락슨 / 크리스 메시나 / 미국 / 2018

“트라우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흥행작 『나를 찾아줘』의 원작가 길리언 플린이 집필한 동명 소설을 HBO 오리지널 시리즈로 재탄생시킨 <몸을 긋는 소녀>. 주인공 ‘카밀 프리커(에이미 아담스)’는 신문기자로서 고향 ‘윈드갭’에서 발생한 두 명의 소녀 실종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돌아온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로의 귀환은 단순한 취재가 아닌, ‘카밀’에게 억눌러왔던 과거와의 재회로 돌아온다. 통제적이고 냉담한 어머니, 미묘한 긴장감을 풍기는 이복동생, 그리고 오래된 상처로 얼룩진 유년 시절의 기억

까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카밀'은 자신 속 깊숙이 숨겨둔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되고, 끝내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수수께끼'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